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내정 조영택 前 국무조정실장

# “중앙-지방정부 가교역할 중점”

종합계획 조기 수립 신속 진행  
조성위-추진기획단 갈등 안돼



“광주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광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많은 의견들이 분출되면서 마치 커다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측면이 있다”며 “이는 상호의 사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 조성위원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조 내정자는 “당초 4월께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늦어지고 있다”며 “종합계획이 조기에 수립돼 조성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재구 위원장 해촉에 반발, 사퇴 의사를 밝힌 민간 조성위원들에 대해 조 내정자는 “지금에 이르러 시기적절하게 보다는 머리를 맞대야

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5월 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약 70여명 규모의 운영지원팀이 발족할 예정이므로 조성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시아 문화재단의 랜드마크 기능 문제에 대해 조 내정자는 “광주시와 문화관광부가 최근 랜드마크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측 입장을 조정해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단 본부장 선임과 관련, 조 내정자는 “문화관광부가 조만간 능력있는 분을 선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처럼 조성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의 불협화음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였던 박광태 광주시장과 관련, 조 내정자는 “박 시장과 저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동 목표가 있다”며 “특히 고향 선배인 박 시장에 대한 앙금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은하? 이명박, 표 되면 아무 데나 삼 들이대”  
“박근혜, 열차 페리는 부처 수준에서 검토할 사안”

# 이해찬, 이명박·박근혜 맹비난

광주 한반도평화 토론회

범여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한나라당 유력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강경한 어조로 비판,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동북아평화위원회 주최로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의 물줄기를 운하를 파서라도 되돌릴 수 있는 정당”이라며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집권 연장과 정권 보존을 위해 염치없이 이용했던 공화당·민주당·신한국당의 후예라는 역사적 전통과 최근 집권을 위해서는 촛불집회도 불법화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는 오만한 자세가 겹쳐지면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체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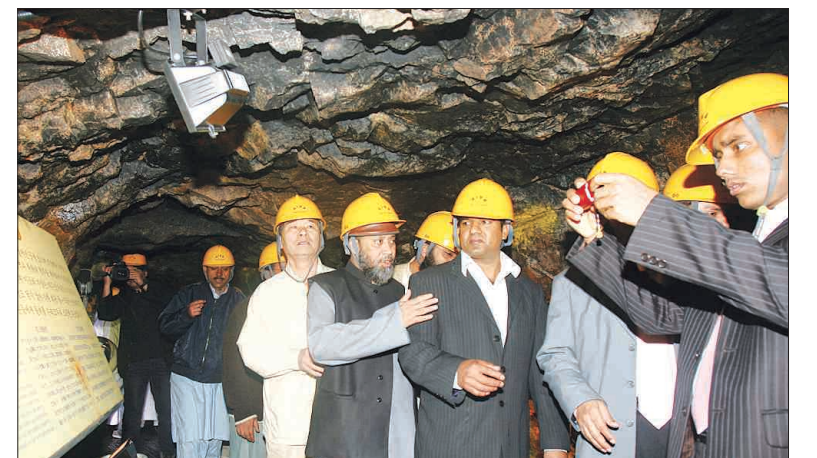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좋다는 것은 무책임함을 넘어 우격다짐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열차페리’ 구상에 대해서도 “중국의 관계 발전 속도를 볼 때 검토할만한 일이지만 최고 지도자가 나설 국가발전전략이라기보다 정부부처 수준에서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최근 발표한 3대 규제개혁 등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도 “현 경제의 흐름과 과제에 비해 지나치게 친 재벌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연설을 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평화협정은 4국(한국·북한·미국·중국) 협정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4국 정상회담도 필요하지만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한 이슬람교 신자들, 땅굴 견학 서울 이태원 중앙이슬람성원 신자 38명이 국가정보원의 초청으로 25일 경기도 파주 제3땅굴을 견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성관광 등 추가 대북사업 탄력

내금강관광 6월부터 실시



현대그룹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금강산 내금강 관광이 성사됨에 따라 향후 대북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년 만에 실현한 내금강 관광=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현대아산은 내금강 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북측은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남측 관광객에게 내금강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측의 태도가 유연해지면서 내금강 협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고 지난날 남북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모여 내금강 도로, 관광코스, 시설 보수 여부 등을 논의하면서 분관관 시기를 조율한 끝에 관광 성수기인 6월로 결정됐다.

아울러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이 내달 17일로 예정돼 향후 이들 철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아산은 이미 제주항공과 제휴해 김포-양양 항공편을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고 있다.

◇내금강 관광 인프라 확충 시급=내금강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데다 이동 경로 또한 험난해 도로 확충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대아산은 내금강에 기술자를 파견해 현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금강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산등성이를 타고 돌아가야 하고 포장과 안전시설이

안락하지 않아 본 관광에 앞서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안전시설과 화장실, 편의시설도 아직 부족하고 계곡 사이에 위치한 관광지를 관람객들이 보기 편하게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정은 회장 대북 사업 입지 구축=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해 북한 핵심협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 등으로 대북사업의 갈림길에 섰지만 내금강 관광 성사로 확실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대북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현대아산이 지난해 경영 위기에 봉착하는 등 남북 관계 악화로 대북 사업은 자꾸만 꼬였고 그룹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해 사면초가의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대북사업은 지속한다”는 소신을 지키면서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과 함께 내금강 관광 실현에 중점을 둔 결과 북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며 금강산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슬로바키아·체코 등 해외서 여수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

# 정몽구회장 변함없는 ‘엑스포 사랑’



2012년 여수엑스포에 대한 정몽구(사진)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사랑이 뜨겁다.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준공식과 현대차 체코공장의 기공식 관련 공식행사는 물론 사석에서 쉽게 여수엑스포의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하는 모습이나 행사장 곳곳에 나누는 엑스포 유치 플래카드를 엑스포를 향한 정회장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읽게 했다.

실제 기아차 슬로바키아공장 준공식을 하루 앞두고 슬로바키아 정·관·계 인사 초청을 위한 행사만찬장에서는 엑스포 관련 홍보

영상이 4개나 방영될 정도로 사실상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만찬이었다.

정 회장은 24일 준공식 직전 로베르트 피초 수상과 슬로바키아 주재 주요국 대사를 대상으로 공장을 안내하면서 “한국인들은 매우 똑똑하다. 2012년 엑스포가 여수에서 열린다면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몇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2012년 유치지원단 자격으로 이

곳을 찾은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회장의 열정에 놀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에서 정회장의 공식 직함은 고문. 하지만 정회장은 그물내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 TFT’를 만들어 5년 전 뒤엎던 정에멤버를 불러들였고 별도의 지원예산까지 짜놓았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내달 브라질을 시작으로 11월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 전까지 매달 해외에서 직접 엑스포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홍행기자 jrdplane@kwangju.co.kr

## 제9회 함평 나비 대축제

### Butterfly Festival Hampyeong 9th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

2007.5.3(목) ~ 5.8(화) 6일간

장소 : 함평천수변공원, 친환경농업지구등  
 안내 : 061)320-3364 / www.inabi.or.kr  
 입장권판매사이트 : www.inabishop.com

주최 : 함평군(주관·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송향공여행사등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주제 : 미래를 만드는 작은세계 기간 : 2008. 4. 18 ~ 6. 1(45일간)  
 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엑스포 공원  
 주최 : 전라남도 함평군 주관 : (재)함평세계나비 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